



자전거 도둑

다림 | 박완서 글 / 한병호 그림



표지 탐색하기

<자전거 도둑>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자전거 도둑'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다음은 이 소설집의 작품 해설에서 발췌한 뒤표지 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면서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주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으며 편하게 살면서 남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요즘, 이제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자기 것을 더 많이 얻고 마음껏 즐기며 편하게 사는 세상을 얻으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나) ㉠당장 눈앞의 편리와 이익과 쾌락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않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세상. 그러한 세상은 과연 살 만한 곳인가? 오늘의 작가 박완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① (가)의 내용에 공감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

② (나)의 밑줄 친 ㉠, ㉡은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세요.

⇒ ㉠의 예 :

㉡의 예 :



자전거 도둑

다림 | 박완서 글 / 한병호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자전거 도둑>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① 혹시나 하고 보따리 속에 찢러 가지고 온 중학교 때 교과서랑 고등학교까지 다닌 형이 쓰던 참고서 ()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었다.
- ② 이럴 때 수남이는 이 세상에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
- ③ 수남이는 자전거를 마치 ()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 ④ “도시에선 수없는 문명의 ()들이 사람 사는 걸 돕고 있었어요.”
- ⑤ 그것은 임금님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일제히 불행해질 수 있도록 그 () 연습을 지금부터 백성들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 (나) · 하여튼 수남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재수 옴 붙었다는 것뿐이었다.
- “싼 맛에 이사를 왔더니만 ㉡싼 게 비지떡이지, 아유 이 파리 좀 봐.”

1) 문맥상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이기 : 실용에 편리한 기계나 기구.
- 예행 : 연습으로 미리 행함. 또는 그런 일.
- 족속 : 같은 패거리에 속하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나부랭이 : 종이나 형겅 따위의 자질구레한, 길고 가느다란 조각.
- 검부러기 : 검불(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의 부스러기.

2) (나)의 밑줄 친 표현 ㉠, ㉡의 뜻을 아래에서 찾아 알맞게 짝을 지으세요.

㉠-(), ㉡-()

- ㉢ 값이 싼 물건은 품질도 그만큼 나쁘게 마련이라는 말.
- ㉣ 재수가 아주 없음을 이르는 말.



자전거 도둑

다림 | 박완서 글 / 한병호 그림



자전거 도둑

‘자전거 도둑’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라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 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질은 쾌감, 아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질게 느꼈던 것이다.

(나)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알았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남이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 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 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에 도사린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해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났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1) (가)에 나타난 ‘나’(수남이)의 감정 상태를 정리해 봅시다.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린 것 → 도둑질	➔	부정적 감정 : 공포, 무거운 억압, 죄책감
		긍정적 감정 :

2) (나)에 나타난 ‘수남이’(소년)의 생각의 흐름을 3단계로 정리해 보세요.

①	➔	②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③
---	---	-------------------------------	---	---



자전거 도둑

다림 | 박완서 글 / 한병호 그림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래? 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구나. 어디 네 양갓음의 꿈을 얘기해 보렴.”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지든지 해서 저는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꾸러미에 대한 양갓음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색하게 갚아 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 있니?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요?”

(나) “우선 달걀을 보여 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과는 또 다른 달걀을.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의 쓸모와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를 배웠지 않니? 너는 네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 두는 게 좋아. 아마 도시 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여지는가를 알면.”

1) (가)에서 ‘한뎬’는 ‘달걀’을 천대하는 ‘도시 사람들’에 대한 양갓음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 선생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뎬’에게 충고하는 말을 써 보세요.

2) ‘문 선생님’이 말한 ㉠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서 파악하여 써 보세요.

· 달걀은 달걀로 갚기

→

→



자전거 도둑

다림 | 박완서 글 / 한병호 그림



시인의 꿈

‘시인의 꿈’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런데 왜 시가 쓸모 없는 것 취급을 받았을까요?”

“무엇에 쓸모 있느냐가 문제였지. 그 시절 사람들은 몸을 잘 살게 하는 데 쓸모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살게 하는 데 쓸모 있는 건 무시하려 들었으니까.”

“그럼 몸이 잘 사는 것과 마음이 잘 사는 것은 서로 다른 건가요?”

“암, 다르고말고. 몸이 잘 산다는 건 편안한 것에 길들여지는 거고, 마음이 잘 산다는 건 편안한 것으로부터 놓여나 새로워지는 거고, 몸이 잘 살게 된다는 건 누구나 비슷하게 사는 거지만, 마음이 잘 살게 된다는 건 제각기 제 나름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

(나) “너는 참 착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할아버지가 얻으려 다니는 건 그런 말이 아니란다.”

“그런 말하고 또 다른 말도 있나요?”

“암, 있고말고. 요새 떠다니는 말은 새로 생긴 물건의 이름하고, 그걸 갖고 싶다는 욕심을 위한 말이 전부지. 그러나 ㉠시를 위한 말은 그런 물건에 대한 욕심과는 상관없는 마음의 슬픔, 기쁨, 바람 등을 나타내는 말이란단다. 얻으려 다녀 보니 그런 말이 어찌면 그렇게 귀해졌는지, 이 근처엔 거의 없고 저 변두리 평민 아파트 근처에나 조금씩 남아 있는데, 거기도 온종일 헤매야 겨우 한두 마디 얻어 가질 정도로 드물어.”

1) (가)에서 ‘할아버지’가 말한 ‘몸’과 ‘마음’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잘 산다는 것 : ■ 몸이 잘 살게 된다는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잘 산다는 것 : ■ 마음이 잘 살게 된다는 것 :
---	---	---

2) (나)에서 ‘할아버지’가 ㉠을 얻으려 다녀 보니 그런 것이 많이 귀해졌다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풀어 써 보세요.

⇒ 사람들이 _____



자전거 도둑

다림 | 박완서 글 / 한병호 그림



옥상의 민들레꽃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도시로 부는 바람을 탄 민들레 씨앗들은 모두 시멘트로 포장한 딱딱한 땅을 만나 싹트지 못하고 죽어 버렸으련만, 단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웅색하나마 흙을 만난 것입니다.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 하던 것이 큰 잘못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나를 찾아 헤매다 돌아와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껴안고 영영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구나, 막내야.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살아 있지 않으려고 했다.”

(나)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껏 행복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줬기 때문 이니까요. 그것은 마치 엄마의 보석 반지가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보석이 아름다 워서가 아니라 보석이 진짜라는 보석 장수의 보증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 “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집엔 노인네가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다들 그래야 됩니다. 노인네를 지키는 것은 노인네를 모신 집만의 골칫거리지만 아파트 값의 최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 (가)에서 ‘나가 민들레꽃을 보고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 까요? 민들레꽃이 피어 있는 모습과 연관지어 써 보세요.

⇒

2) (나), (다)에서 드러나는 궁전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을 비판해 보세요.



자전거 도둑

다림 | 박완서 글 / 한병호 그림



할머니는 우리 편

‘할머니는 우리 편’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번 아파트는 앞으로도 뒤로도 아파트만 보이는 그런 답답한 동네가 아니고 베란다에 나가면 넓은 들판과 작은 집들과 저 멀리 산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들판에는 밭도 있지만 그냥 잡초가 무성한 빈 땅도 있고, 시뻘건 흙이 드러난 작은 언덕도 있고 오솔길도 있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저녁 나절이나 이른 새벽에 손 잡고 그 들판을 산책하기를 즐겼습니다.

“아아 오래간만에 흙 냄새, 풀 냄새를 맡으니 살 것 같구나. 이 곳 경치는 할머니가 태어난 시골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닮았다. 길수야, 난 이 곳이 좋구나. 이 곳에 오래오래 살고 싶구나.”

(나) 그러나 엄마는 이사 오자마자 또 이사 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들판에 있는 작은 집들이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집들은 작을 뿐 아니라 불결합니다. 하수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은 몇 집에서 같이 쓰는데도 작고 수세식도 아닙니다. 나도 그런 집 앞을 지날 때면 얼굴이 조금 찡그려집니다. 엄마는 그 집들이 무허가 건물이라 언젠가는 헐릴 테지만 헐릴 때까지도 못 참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1) (가)에서 ‘할머니’가 ‘이번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써 보세요.

2) (나)에서 ‘엄마’가 ‘이번 아파트’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써 보세요.

3) ‘할머니는 우리 편’ 전체를 읽고 ‘길수 할머니’와 생각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자연의 마음을 배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큰 집, 더 좋은 학군이 중요하다.
- ②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과 호흡하며 욕심 내지 않고 사는 삶이 소중하다.
- ③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전거 도둑

다림 | 박완서 글 / 한병호 그림



마지막 임금님

‘마지막 임금님’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대는 이 나라의 신성한 헌법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모독한 죄로 이에 독배를 내리노라!” 꿍어앉아 메마른 나무젓가락에 이 세상을 온통 껴안을 수 있을 만큼 인자하고 너그러운 얼굴을 새기고 있던 사나이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사나이의 수척한 얼굴은 일그러지기는커녕 빈틈없이 평온해졌습니다. 때문었으면서도 티끌 하나 없는 것처럼 순수했습니다. 그건 불행한 얼굴도 행복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 길러 낸 다만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임금님은 타는 듯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 얼굴이야말로 임금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었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나이는 독배를 받들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은총이 하해와 같습니다. 이제야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군요. 쉬고 싶습니다. 임금님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대는 끝끝내 나를 이길 셈이군. 그렇지만 이번만은 안 되네, 이번만은 그대에게 질수가 없어. 이번에 지면 영원히 만회할 수가 없을 테니까.” 사나이가 입으로 가져가려는 독배를 임금님은 황급히 빼앗더니 대신 마셔 버렸습니다.

1) 윗글에서 ‘임금님’이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윗글에서 ‘임금님’은 ‘사나이’의 얼굴을 질투하다가 스스로 독배를 빼앗아 마셔 버렸습니다. ‘임금님’이 이러한 행동을 한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써 보세요.

· 원인 :

· 결과 :

